

보도시점 2025. 5. 13.(화) 12:00 (2025. 5. 14.(수) 조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더 많은 청년에게 더 빠르게 지원합니다!"

- ◆ 2025년 1차 추경을 통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요 제도개선
 - (지원 인원 확대) 10만명 → 10.7만명
 - * 대학 졸업예정자 지원 대상 포함
 - (청년 근속 인센티브 조기 지급) 18·24개월 → 6·12·18·24개월차 지원

고용노동부는 최근 경기 불확실성이 커져 기업의 신규 채용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추가 편성**했다. (7,772억원 → 8,026억원, 254억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 등을 채용한 중소기업과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을 각각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현장에서 호응이 높다.

'23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체는 만성적인 구인난이 있던 기업이었으나 정부 지원금을 활용하여 신입사원 연봉 인상, 노후 시설교체 등 청년들을 위한 복지를 개선한 결과 청년 구직자의 입사 지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 한편, 장기 실업자이던 청년 ㄴ씨는 기업의 경력직 선호로 걱정이 많았으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이 되어 직업훈련을 받고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취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10만명의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추경을 통해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여 7천명을 추가 지원한다. 이는 최근 청년 고용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력직 선호도 증가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것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경우는 이번 추경을 통해 청년에 대한 근속 인센티브를 조기에 지급하여 청년구직자와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홍경의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청년들이 보다 빨리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며, "정부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취업 후에도 근속 인센티브 지원, 직장적응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장기 근속하여 중간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

담당 부서	청년고용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지원 (044-202-7432)
	공정채용기반과	담당자		황현두, 임동훈 (044-202-7441, 7466) 오세린, 이아름 (044-202-7448, 7453)





'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추경반영)





일자리*

2025

대학졸업예정자까지 지원을 더 늘리고 청년근속인센티브 6개월부터 빠르게 지급



		유형	유형비		
+7,0	,000명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업 청년을 채용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지원요건	취업애로청년을 신규채용 ▲실업기간 4개월 이상 ▲고졸 등	기업 청년 신규채용 후 6개월 이상 재직 청년 해당 기업에서 신규채용 후 6개월 이상 재직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 기준에 대학졸업예정자도 포함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대 720만 원)	기업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대 720만 원) 청년 재직 <u>6개월·12개월</u> ·18개월·24개월 차에 각 <u>120만 원씩</u> 근속 인센티브를 조기 지급 (최대 480만 원)		
	참여방법	고용24에서 신청 *청년 채용 전 미리 사업신청 필요	고용24에서 신청 기업 기업이 청년채용 전 미리 사업신청 필요 청년 청년이 해당기간 근속 후 신청 필요	2)	
	문의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기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국번없이 1350			

도전하는 청년에게 480만 원 약진하는 기업에게 720만 원

